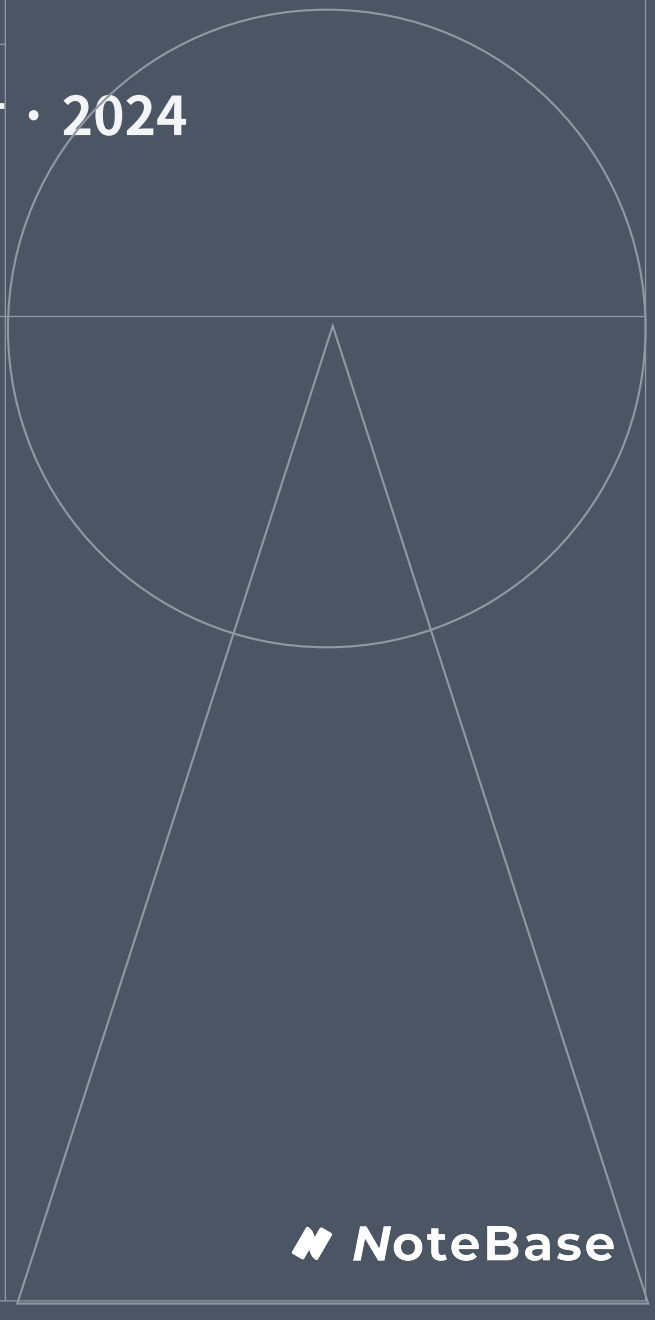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4

공무원/지방직/9급 · 회계학 · 2024

문 1. 시산표의 자기검증기능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오류는?

① 감가상각비 ₩1,000을 인식하면서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을 두 번 기록하였다.

② 매입채무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

③ 종업원에게 급여 ₩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차) 전기료 ₩5,000 (대) 현금 ₩5,000'으로 기록하였다.

④ 은행으로부터 현금 ₩8,000을 차입하면서 차변에만 현금 증가를 기록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처럼 차변에만 ₩8,000을 기록하면 **차변 합계가 대변 합계보다 ₩8,000 커진다**. 시산표는 차변·대변 합계의 불일치를 확인하므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시산표는 원장 계정의 차변·대변 금액을 모아 양쪽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표이다. 차변·대변이 같은 금액만큼 함께 잘못 기록되면 합계는 여전히 일치하므로, 시산표의 자기검증기능만으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① X: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두 번 기록하면 차변과 대변이 각각 ₩1,000씩 추가되어 **양쪽 합계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시산표로는 중복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 ₩1,000은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으로 한 번만 기록해야 한다.

② X: 매입채무 지급 거래를 전혀 기록하지 않으면 **차변과 대변이 함께 누락**되므로 양쪽 합계의 일치는 유지된다. 따라서 시산표로는 발견할 수 없다. 매입채무라는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여 '(차) 매입채무 ₩3,000 (대) 현금 ₩3,000'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X: 급여 대신 전기료를 차변에 기록했지만 차변과 대변에 각각 ₩5,000이 기록되어 합계는 일치한다. 시산표는 이러한 **계정과목의 잘못된 선택**을 발견하지 못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이므로 '(차) 급여 ₩5,000 (대) 현금 ₩5,000'으로 기록해야 한다.

④ O: 현금 차입은 현금과 차입금이 함께 증가하는 거래이므로 '(차) 현금 ₩8,000 (대) 차입금 ₩8,000'으로 기록해야 한다. 차변에만 현금 증가를 기록하면 **대변의 차입금 ₩8,000이 누락**되어 차변 합계가 대변 합계보다 ₩8,000 커진다. 따라서 시산표의 자기검증기능으로 발견할 수 있다.

NoteBase

문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기준은 아니지만 어떠한 회계기준보다도 우선한다.

②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어떠한 회계기준보다도 우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의 이해와 개발을 돕는 개념적 기초이며, 개별 회계기준과 충돌하면 **개별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의 목적과 기본 개념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회계기준은 아니다. 또한 **어떠한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도 우선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거래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개념체계와 다르더라도 그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O: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의 목적, 유용한 재무정보의 특성, 자산·부채 등의 기본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통 토대는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O: 개념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별 기준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공통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기준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④ O: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목적적합성은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이다. 충실한 표현은 나타내려는 경제적 현상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없이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정보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어도 그 현상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면 유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두 특성이 모두 필요하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의 다음 20×1년 주식 거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월 27일: A주식(당기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120,000에 매입하고 거래수수료로 ₩5,000을 지출하였다.
◯ 10월 6일: B주식(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90,000에 매입하고 거래수수료로 ₩2,000을 지출하였다.
◯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는 A주식 ₩117,000, B주식 ₩99,000이다.

① ₩3,000 증가
② ₩6,000 증가
③ ₩8,000 감소
④ ₩10,000 감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A주식의 거래수수료 5,000원과 평가손실 3,000원은 **당기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을 합계 8,000원 감소시킨다. B주식의 거래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산 과정

A주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매입 시 거래수수료를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2월 27일의 최초 장부금액은 매입가격인 120,000원이고, 거래수수료 5,000원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결산일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므로 평가손익은 117,000 − 120,000 = −3,000원이다. 이 평가손실도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A주식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5,000 + 3,000 = 8,000원이다.

B주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매입 시 거래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따라서 10월 6일의 최초 장부금액은 90,000 + 2,000 = 92,000원이다. 결산일 평가이익은 99,000 − 92,000 = 7,000원이며, 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거래수수료를 별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평가이익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B주식의 당기순이익 영향은 0원이다.

전체 영향: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금액만 합산하면 −5,000 − 3,000 + 0 = −8,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8,000원 감소하며,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20×1년 (주)한국의 미지급이자 기초금액은 ₩190,000이며, 11월 1일 ₩100,000을 1년 동안 차입(연 이자율 12%, 이자는 1년 후 전액 지급 조건)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미지급이자 기말금액이 ₩160,000일 때, 미지급이자에서 20×1년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① ₩29,000

② ₩30,000

③ ₩31,000

④ ₩32,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미지급이자는 당기에 발생한 이자만큼 늘고 현금으로 지급한 만큼 줄어든다. 기초 잔액에 **11~12월 발생이자 2,000원**을 더한 뒤 기말 잔액을 빼면 현금지급액은 **32,000원**이다.

계산 과정

미지급이자는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이다. 당기에 이자가 발생하면 부채가 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부채가 줄어들므로 기말 미지급이자 = 기초 미지급이자 + 당기 발생이자 − 당기 현금지급액의 관계가 성립한다.

당기 발생이자: 11월 1일 차입했으므로 20×1년에 이자가 발생한 기간은 11~12월의 2개월이다. 연 이자율 12%를 월할 적용하면 이자는 $100{,}000 \times 12\% \times \frac{2}{12} = 2{,}000$원이다. 이자는 1년 후 전액 지급하는 조건이지만, **당기에 발생한 2개월분은 미지급이자로 인식**한다.

현금지급액: 기초 미지급이자 190,000원에 당기 발생이자 2,000원을 더한 192,000원 중 기말에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6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 현금지급액은 190,000 + 2,000 − 160,000 = 32,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10,000,000에 취득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은 매년 말 토지를 재평가하며, 토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2년 말 (주)한국의 토지 재평가 시 회계처리는?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공정가치	₩ 12,000,000	₩ 9,000,000

① (차) 재평가잉여금 ₩2,000,000 (대) 토지 ₩3,000,000
(차) 재평가손실 ₩1,000,000

② (차) 재평가잉여금 ₩3,000,000 (대) 토지 ₩3,000,000

③ (차) 재평가손실 ₩3,000,000 (대) 토지 ₩3,000,000

④ (차) 재평가손실 ₩1,000,000 (대) 토지 ₩1,0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0×2년 말 토지의 가치 감소액 3,000,000원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 2,000,000원을 먼저 차감**하고, 이를 초과한 1,000,000원만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토지 장부금액은 감소액 전부인 3,000,000원만큼 줄여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말 재평가: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0,000,000원이다. 표의 20×1년 말 공정가치가 12,000,000원이므로 증가액은 12,000,000 − 10,000,000 = 2,000,000원이다. 이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한다. 따라서 토지 장부금액은 12,000,000원,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2,000,000원이 된다.

2. 20×2년 말 감소액: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12,000,000원과 표의 공정가치 9,000,000원을 비교한다. 토지를 공정가치로 낮추는 데 필요한 감소액은 12,000,000 − 9,000,000 = 3,000,000원이다. 감소액의 기준은 최초 취득원가가 아니라 **직전 장부금액**이다.

3. 감소액의 배분: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다만 **동일 자산의 기존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한다. 이 토지에는 재평가잉여금 2,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전액 차감하고, 초과액 3,000,000 − 2,000,000 = 1,000,000원은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회계처리: 자본인 재평가잉여금의 감소와 비용인 재평가손실은 차변에, 자산인 토지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차) 재평가잉여금 2,000,000원
(차) 재평가손실 1,000,000원
(대) 토지 3,000,000원
이는 ①의 분개와 일치하며, 처리 후 토지 장부금액은 9,000,000원,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0원이다.

NoteBase

문 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하며, 총원가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이다.

③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자체조달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정부간이전수익, 자체조달수익 및 정부간이전수익 외의 수익인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④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표시하며,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이다.

정답 1번

①

교환거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청구권의 발생을 인식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교환거래 수익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NoteBase

②

총원가는 사업 투입원가에 **다른 사업에서 배부받은 원가는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는 차감**한 금액이다. 사업순원가는 이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재정운영표)
②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1. 사업순원가: 가목에 따른 총원가에서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총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
나. 사업수익: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

③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구분한다. 독자적인 과세권한과 자체 징수활동으로 조달하면 자체조달수익,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으면 정부간이전수익, 두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기타수익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7>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④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기본적 기능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재정운영표)
②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2. 재정운영순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관리운영비: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나. 비배분비용: 임시적 ·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사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다. 비배분수익: 임시적 ·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나목의 사업수익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NoteBase

문 7.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이 ₩10,000,000, 총고정원가가 ₩2,000,000, 공헌이익률은 40%일 때 안전한계율은 ?

① 30%

② 40%

③ 50%

④ 6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안전한계율은 매출액 중 **손익분기점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이다. 손익분기점매출액이 500만원이므로, 매출액 1,000만원 중 500만원이 안전한계액이며 안전한계율은 50%이다.

계산 과정

안전한계율은 현재 매출액이 손익분기점매출액보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은 1,000만원, 총고정원가는 200만원, 공헌이익률은 40%이다. 주어진 공헌이익률과 총고정원가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손익분기점매출액을 먼저 구한다.

1. 손익분기점매출액: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공헌이익률이 40%이므로 매출액의 40%가 고정원가 회수와 이익 창출에 쓰인다. 손익분기점에서는 **공헌이익과 총고정원가가 같아지므로**, 총고정원가를 공헌이익률로 나누어 매출액을 구한다. 손익분기점매출액은 $\frac{200}{0.4} = 500$만원이다. 즉, 매출액이 500만원이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모두 회수하여 영업이익이 0이 된다.

2. 안전한계율: 안전한계액은 현재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매출액을 뺀 금액으로, 1,000 − 500 = 500만원이다. 이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까지 감소할 수 있는 매출액의 여유분이다. 안전한계율은 이 여유분을 **현재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타낸 비율이므로, $\frac{500}{1{,}000} \cdot 100 = 50\%$이다. 따라서 안전한계율 50%는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의 20×1년 연구개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인식할 비용은?

◯ 1월 31일 종료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300,000
◯ 3월 31일 종료된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1,000,000
— 이 중 ₩400,000은 무형자산의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여 개발비로 계상함
— 개발비의 사용가능 시점은 4월 1일,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없음, 정액법, 월할 상각,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음

① ₩700,000
② ₩730,000
③ ₩900,000
④ ₩93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연구단계 비용 300,000원과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단계 지출 600,000원은 발생한 해의 비용이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는 **사용가능 시점인 4월 1일부터 9개월간의 상각비** 30,000원을 반영하므로, 당기 비용 합계는 930,000원이다.

계산 과정

연구단계 비용: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생 시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1월 31일까지 발생한 300,000원이 당기 비용에 포함된다.

개발단계 비용: 개발단계 지출 1,000,000원 중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여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은 400,000원이다. 나머지 1,000,000 − 400,000 = 600,000원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발비 상각비: 자산으로 계상한 400,000원은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0원인 정액법 상각 대상이므로 연간 상각액은 400,000 ÷ 10 = 40,000원이다. 상각은 개발단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20×1년에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분을 월할 계산한다. 당기 상각비는 $40,000 \times \frac{9}{12} = 30,000$원이다.

당기 비용 합계: 연구단계 비용, 비용 처리한 개발단계 지출 및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당기 상각비를 합산한다. 300,000 + 600,000 + 30,000 = 930,000원이므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량흐름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완성품환산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 기초재공품 2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30%)
◯ 당기착수량 1,800단위
◯ 당기완성량 1,500단위
◯ 기말재공품 5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60%)

① 가중평균법에 의한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800단위이다.
② 가중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600단위이다.
③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800단위이다.
④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660단위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수행한 작업량만**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한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에는 당기에 추가할 재료가 없고, 당기착수량 1,800단위에는 모두 재료가 투입되어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800단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완성품환산량은 원가요소별 작업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에 포함된 전기 작업분을 당기 작업분과 구분하지 않지만, 선입선출법은 당기 작업분만 계산한다.

① X: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도 **직접재료원가 완성도는 100%**이다. 가중평균법의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1,500단위와 기말재공품 500단위를 합한 2,000단위이다. 따라서 '1,800단위'는 '2,000단위'로 고친다.

② X: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기말재공품 500단위의 가공 작업량은 500 × 60% = 300단위이다.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가공 작업량을 차감하지 않고**, 완성품 1,500단위에 기말재공품 환산량 300단위를 더한다. 따라서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600단위가 아니라 1,800단위이다.

③ O: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 200단위가 먼저 완성되므로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수량은 1,500 − 200 = 1,3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에는 직접재료가 전기에 이미 전량 투입되어 **당기 직접재료 작업량은 0**이다. 당기착수·완성품 1,300단위와 기말재공품 500단위에는 당기에 직접재료가 전량 투입되었으므로,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0 + 1,300 + 500 = 1,800단위이다.

④ X: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재공품에 필요한 당기 가공 작업은 **미완성 부분인 70%**이므로 200 × 70% = 140단위이다. 당기착수·완성품의 가공 작업량은 1,500 − 200 = 1,300단위이고, 기말재공품의 가공 작업량은 500 × 60% = 300단위이다. 따라서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40 + 1,300 + 300 = 1,740단위이며, '1,660단위'는 '1,740단위'로 고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상품)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 장부상 재고수량 1,100개
◯ 실지재고 조사수량 1,000개
◯ 재고자산감모손실 ₩50,000
◯ 재고자산평가손실 ₩40,000

① ₩40
② ₩460
③ ₩500
④ ₩54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감모수량 100개에 대한 손실 50,000원으로부터 단위당 원가가 500원임을 알 수 있다. 평가손실은 **실제로 남아 있는 1,000개**에 적용되므로 단위당 가치 하락액은 40원이고,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500 − 40 = 460원이다.

계산 과정

1. 감모수량 계산: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다. 감모수량은 1,100 − 1,000 = 100개이다.

2. 단위당 원가 계산: 감모손실은 부족한 수량에 원가를 곱한 금액이므로, **감모손실을 감모수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를 구할 수 있다. 단위당 원가는 $\frac{50{,}000}{100} = 500$원/개이다.

3. 단위당 평가손실 계산: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판매까지 추가로 필요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원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평가손실은 감모된 수량을 제외한 **실지재고수량 1,000개**에 대해 발생하므로, 단위당 평가손실은 $\frac{40{,}000}{1{,}000} = 40$원/개이다. 이는 실제 남은 상품 한 개당 원가보다 가치가 40원 낮다는 뜻이다.

4.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계산: 단위당 원가에서 단위당 평가손실을 차감하면 500 − 40 = 460원/개이다. 따라서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46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A의 20×1년 말 재정상태표상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 A의 20×1년 말 재정상태표상 자산 총계는?

◯ 부채 총계 ₩2,000,000
◯ 사회기반시설 투자액 ₩900,000
◯ 일반순자산 ₩300,000
◯ 무형자산 투자액 ₩100,000
◯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 ₩450,000
◯ 적립성기금의 원금 ₩150,000

① ₩2,900,000
② ₩3,000,000
③ ₩3,450,000
④ ₩3,900,000

정답 2번

공통 해설

고정순자산은 **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 투자액에서 관련 시설투자 차입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고정순자산 = 900,000 + 100,000 − 450,000 = 550,000원이다.
적립성기금의 원금 150,000원은 특정순자산이므로, 순자산 총계는 550,000 + 150,000 + 300,000 = 1,000,000원이다.
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순자산 총계이므로 2,000,000 + 1,000,000 = 3,000,000원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산 · 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③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계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예정기계가동시간은?

◯ 제조간접원가 예산 ₩500,000
◯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600,000
◯ 실제 기계가동시간 45,000시간
◯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150,000 과소배부

① 50,000시간
② 60,000시간
③ 70,000시간
④ 80,000시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과소배부 150,000원은 실제 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금액이므로, **예정배부액은 450,000원**이다. 이를 실제 기계가동시간으로 나눈 예정배부율은 시간당 10원이며, 제조간접원가 예산 500,000원에 대응하는 예정기계가동시간은 50,000시간이다.

계산 과정

1. 예정배부액 구하기: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미리 정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에 실제 배부기준량을 곱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경우**이므로, 예정배부액은 실제 발생액에서 과소배부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예정배부액 = 600,000 − 150,000 = 450,000원

2. 예정배부율 구하기: 기계가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예정배부액 450,000원을 실제 기계가동시간 45,000시간으로 나누면 기계가동 1시간당 적용한 배부율을 구할 수 있다.
예정배부율 = 450,000원45,000시간 = 10원/시간

3. 예정기계가동시간 구하기: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예정기계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앞에서 구한 시간당 10원으로 나누면 예산 편성 시 예정한 기계가동시간을 구할 수 있다.
예정기계가동시간 = 500,000원10원/시간 = 50,000시간

예정기계가동시간은 50,000시간으로, ①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의 20×1년 초 자산과 부채 총계는 각각 ₩5,000,000과 ₩2,000,000이며, 20×1년 중 발생한 자본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으로 각각 ₩100,000과 ₩30,000을 보고했다면, 20×1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는?

◯ 3월 20일: 현금배당 ₩100,000을 결의하였으며, 현금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
◯ 4월 1일: 3월 20일 결의한 현금배당 ₩100,000을 주주에게 지급하였다.
◯ 7월 15일: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주당 ₩800에 발행하였다.
◯ 8월 20일: 자기주식 30주를 최초로 취득(주당 취득금액 ₩700)하였다.
◯ 9월 20일: 자기주식 20주를 매각(주당 매각금액 ₩750)하였다.

① ₩2,994,000
② ₩3,004,000
③ ₩3,016,000
④ ₩3,104,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기초 자본 3,000,000원에 **총포괄이익 30,000원**과 자본거래의 순감소액 26,000원을 반영하면 기말 자본은 3,004,000원이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자본 내부의 대체이며, 이미 배당을 결의한 뒤의 현금 지급은 자본을 다시 줄이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초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본이므로, 기초 자본은 5,000,000 - 2,000,000 = 3,000,000원이다. 여기에 당기 중 포괄손익과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 인한 변동을 반영한다.

포괄손익 반영: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계이다. 따라서 자본에는 **총포괄이익 30,000원만 가산**한다. 당기순이익 100,000원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30,000 - 100,000 = -70,000원이다.

3월 20일 배당 결의와 이익준비금 적립: 현금배당을 결의하면 이익잉여금이 100,000원 감소하고 미지급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생기므로 자본 총계는 100,000원 감소한다.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100,000 × 10% = 10,000원이다.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옮기는 **자본 내부의 대체**이므로 자본 총계를 추가로 감소시키지 않는다.

4월 1일 배당 지급: 현금 100,000원이 감소하는 동시에 미지급배당금도 100,000원 감소한다.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므로 자본 총계의 변동은 없다. 배당 결의 때 반영한 감소액을 지급 때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7월 15일 신주 발행: 자본금은 100주 × 500원 = 50,000원, 주식발행초과금은 100주 × (800 - 500)원 = 3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자본 총계에는 **액면금액이 아닌 발행대금 전액**인 100주 × 800원 = 80,000원을 가산한다.

8월 20일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취득금액 30주 × 700원 = 21,000원만큼 자본 총계가 감소한다.

9월 20일 자기주식 매각: 매각한 20주의 취득금액 20주 × 700원 = 14,000원만큼 자기주식 차감액이 줄고, 매각대금과의 차액 20주 × (750 - 700)원 = 1,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자본에 반영한다. 따라서 자본 총계는 매각대금인 20주 × 750원 = 15,000원 증가한다. 이 처분이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말 자본 계산: 자본거래의 순변동액은 -100,000 + 80,000 - 21,000 + 15,000 = -26,000원이다. 기말 자본 총계는 3,000,000 + 30,000 - 26,000 = 3,004,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가 (주)한국의 20×1년과 20×2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1년 초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하였다.
○ 20×1년 말 제품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을 ₩630,000으로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 20×2년 말 제품 수요 회복으로 인해, 회수가능액은 ₩880,000으로 상승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

① 20×1년: ₩270,000 감소, 20×2년: ₩170,000 증가
② 20×1년: ₩270,000 감소, 20×2년: ₩250,000 증가
③ 20×1년: ₩370,000 감소, 20×2년: ₩170,000 증가
④ 20×1년: ₩370,000 감소, 20×2년: ₩250,000 증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1년에는 감가상각비 100,000원과 손상차손 270,000원으로 순이익이 370,000원 감소한다. 20×2년의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800,000원**을 한도로 하므로 240,000원이며, 감가상각비 70,000원을 차감하면 순이익은 170,000원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20×1년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으로 배분한다. 연초에 취득하였으므로 1년분 감가상각비는 $\frac{1,000,000-0}{10}=100,000$원이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1,000,000 − 100,000 = 900,000원이다.

20×1년 손상차손과 순이익 영향: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900,000원이 회수가능액 630,000원보다 크므로, 그 차이 900,000 − 630,000 = 27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을 모두 비용에 포함**하므로 순이익은 100,000 + 270,000 = 370,000원 감소한다. 손상 후 장부금액 630,000원이 다음 해 감가상각의 기준이 된다.

20×2년 감가상각비: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 9년**에 걸쳐 배분한다. 감가상각비는 $\frac{630,000-0}{9}=70,000$원이며, 손상차손환입 전 장부금액은 630,000 − 70,000 = 560,000원이다.

20×2년 손상차손환입: 회수가능액은 880,000원으로 상승하였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더라면 감가상각 후 남았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한도는 1,000,000 − 100,000 × 2 = 800,000원이다. 따라서 880,000원이 아니라 800,000원까지만 장부금액을 회복하며, 손상차손환입액은 800,000 − 560,000 = 240,000원이다.

20×2년 순이익 영향: 원가모형에서 손상차손환입액은 당기손익에 이익으로 반영하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차감한다. 따라서 순이익은 240,000 − 70,000 = 170,000원 증가한다.

20×1년 370,000원 감소, 20×2년 170,000원 증가이므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은?

○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

구분	직접재료	재공품	제품
기초	₩ 6,000	₩ 4,000	₩ 50,000
기말	₩ 4,000	₩ 6,000	₩ 40,000

○ 직접재료 매입액 ₩ 10,000

○ 가공(전환)원가 ₩ 20,000

○ 매출총이익률 60 %

① ₩ 40,000

② ₩ 50,000

③ ₩ 100,000

④ ₩ 166,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고 증감을 반영한 매출원가는 40,000원이다. 매출총이익률이 60%이면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40%**이므로, 매출액은 1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직접재료 사용액: 기초 직접재료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총액이 된다. 여기서 기말에 남은 재료를 빼므로, 직접재료 사용액은 6,000 + 10,000 − 4,000 = 12,000원이다.

2. 당기제품제조원가: 가공(전환)원가 20,000원은 직접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든 원가이다. 직접재료 사용액을 더한 당기총제조원가는 12,000 + 20,000 = 32,000원이다. 여기에 기초 재공품 원가를 더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말 재공품 원가를 빼면**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된다.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4,000 + 32,000 − 6,000 = 30,000원이다.

3. 매출원가: 기초 제품과 당기 완성 제품 중 기말에 남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구한다. 매출원가는 50,000 + 30,000 − 40,000 = 40,000원이다.

4. 매출액: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매출총이익률이 60%이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100% − 60% = 40%이다. 따라서 매출액은 $\frac{40,000}{1-0.6} = 100,000$원이며, ③의 100,00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20×1년 초 고객과 총 대가 ₩500,000(설치용역 수수료 ₩50,000 포함)에 기계장치를 판매한 뒤 설치해 주기로 계약하였다. 기계장치 판매와 설치용역은 별개의 수행의무이다. 고객은 기계장치를 인도 시점에 통제하지만, 설치용역에 대한 통제는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 (주)한국은 20×1년 11월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인도하였고, 20×1년 말 설치용역에 대한 진행률은 40%이다. (주)한국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수익은?

① ₩200,000

② ₩450,000

③ ₩470,000

④ ₩5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계장치와 설치용역은 별개의 수행의무이므로 **각각의 통제 이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인도가 끝난 기계장치 수익 450,000원과 진행률 40%에 해당하는 설치용역 수익 20,000원을 합하면 20×1년 수익은 470,000원이다.

계산 과정

수익 인식 기준: 기계장치 판매와 설치용역은 별개의 수행의무이므로 각각 구분하여 수익을 계산한다.
기계장치는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설치용역은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므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기계장치 판매수익: 총 대가 500,000원에는 설치용역 수수료 5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계장치 대가는 500,000 − 50,000 = 450,000원이다. 20×1년 11월 초 인도하여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었으므로 **450,000원 전액**을 20×1년 수익으로 인식한다.

설치용역 수익: 설치용역 대가 50,000원에 기말 진행률 40%를 적용하면 50,000 × 40% = 20,000원이다. 이는 연말까지 이행한 설치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이행한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하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의 대가 30,000원은 당기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년 총수익: 기계장치 판매수익과 설치용역 수익을 합하면 450,000 + 20,000 = 470,000원이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은 47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주)대한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흡수합병하면서, (주)대한의 주주에게 현금 ₩60,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였다.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부채 및 자본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	₩1,000	₩1,000	단기차입금	₩6,000	₩6,000
매출채권	₩2,000	₩2,000	매입채무	₩1,000	₩1,000
재고자산	₩4,000	₩5,000	자본금	₩30,000	
유형자산	₩37,000	₩46,000	이익잉여금	₩7,000	
계	₩44,000	₩54,000	계	₩44,000	

① ₩3,000

② ₩6,000

③ ₩13,000

④ ₩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뺀 금액이다. 순자산 공정가치가 47,000원이므로 영업권은 60,000 − 47,000 = 13,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영업권 계산 기준: 영업권은 지급한 이전대가 중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주)대한의 지분 100%를 취득하므로 순자산 전액을 차감하며, 영업권 = 이전대가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산한다. 이때 자산과 부채는 **취득일인 20×1년 1월 1일의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2.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 표의 공정가치 열에서 현금 1,000원, 매출채권 2,000원, 재고자산 5,000원, 유형자산 46,000원을 합산한다. 자산 합계는 1,000 + 2,000 + 5,000 + 46,000 = 54,000원이다.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각각 장부금액 4,000원과 37,000원이 아닌 공정가치로 반영한다.

3.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인수하는 부채는 단기차입금 6,000원과 매입채무 1,000원으로, 합계 7,000원이다. 따라서 순자산 공정가치는 54,000 − 7,000 = 47,000원이다. 이는 취득한 자산에서 부담할 부채를 뺀 금액이다. 표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 항목**이므로 자산에서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

4. 영업권: 이전대가 60,000원에서 순자산 공정가치 47,000원을 빼면 60,000 − 47,000 = 13,000원이다. 따라서 (주)한국이 인식할 영업권은 13,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실제 제품 생산량은?

◯ 실제 발생 직접재료원가 ₩3,000
◯ 직접재료 kg당 실제 구입원가 ₩30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1,000 유리
◯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 ₩800 유리
◯ 제품 개당 직접재료의 표준투입량 10 kg

① 10개
② 12개
③ 30개
④ 40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실제원가에 **유리한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를 더하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직접재료원가는 4,800원이다. 이를 제품 1개당 표준직접재료원가 400원으로 나누면 실제 생산량은 12개이다.

계산 과정

1. 실제 재료 투입량: 실제 발생 직접재료원가 3,000원을 kg당 실제 구입원가 30원으로 나눈다. 실제 투입량은 $\frac{3,000}{30} = 100$ kg이다.

2. kg당 표준가격: 가격차이는 실제 투입량에 대해 실제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이로 발생한 원가 차이이다. 가격차이가 1,000원 유리하므로 **실제가격으로 계산한 원가가 표준가격으로 계산한 원가보다 1,000원 적다**. 따라서 실제 투입량 100 kg을 표준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은 3,000 + 1,000 = 4,000원이고, kg당 표준가격은 $\frac{4,000}{100} = 40$원이다.

3.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투입량: 수량차이는 실제 투입량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투입량의 차이를 **표준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수량차이가 800원 유리하므로 실제 투입량을 표준가격으로 평가한 4,000원이 허용된 표준투입량의 원가보다 800원 적다. 따라서 실제 생산량에 대한 표준직접재료원가는 4,000 + 800 = 4,800원이고, 허용된 표준투입량은 $\frac{4,800}{40} = 120$ kg이다.

4. 실제 제품 생산량: 허용된 표준투입량 120 kg은 실제 생산량에 제품 1개당 표준투입량 10 kg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실제 생산량은 $\frac{120}{10} = 12$개로, ②의 12개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 액면이자율 연 8%, 발행 시 유효이자율 연 10%)의 20×1년 말 장부금액은 ₩95,000이다. (주)한국은 20×2년 말 동 사채에 대한 액면이자를 지급한 후 즉시 사채 전부를 ₩98,000에 상환하였다. 사채가 (주)한국의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액면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① ₩8,000 감소

② ₩9,500 감소

③ ₩10,000 감소

④ ₩11,000 감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2년의 **이자비용 9,500원**과 **사채상환손실 1,500원**을 함께 반영하므로 당기순이익은 11,000원 감소한다. 상환손실은 이자를 지급한 직후의 장부금액 96,500원과 상환금액 98,000원의 차이이다.

계산 과정

1. 이자비용과 현금 지급액: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장부금액에 발행 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20×2년 기초 장부금액은 20×1년 말의 95,000원이므로 이자비용은 95,000 × 10% = 9,500원이다. 실제 지급하는 액면이자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00,000 × 8% = 8,000원이다.

2. 상환 직전 장부금액: 이자비용 9,500원과 현금 지급이자 8,000원의 차이 1,500원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다. 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면 **사채의 장부금액이 증가**하므로, 이자 지급 직후 장부금액은 95,000 + 1,500 = 96,500원이다.

3. 사채상환손실: 사채를 없애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상환 직전 장부금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손실로 인식한다. 이 사채의 상환금액은 98,000원이므로 사채상환손실은 98,000 − 96,500 = 1,500원이다. 비교 기준은 액면금액 100,000원이 아니라 **상환 직전 장부금액 96,500원**이다.

4.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자비용 9,500원과 사채상환손실 1,500원이 모두 이익을 줄이므로 감소액은 9,500 + 1,500 = 11,000원이다. 지급이자 8,000원은 이자비용 계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11,000원 감소하며,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실체 간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②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정답 1번

①

회계 간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유상거래이면 공정가액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1.1.7>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②

자산 손상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지고 그 차이가 중요하면, **차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고 감액내역을 주석에 공시**한다. 회수가능가액은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②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NoteBase

③

장기연불 매매나 장기금전대차 등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채권 · 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④

우발상황은 미래 사건의 성립 여부에 따라 손익이 확정되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태이다. 우발손실은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석에도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우발상황)
①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1.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NoteBase